



이 없을 것입니다. 신자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며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공감을 느끼게 한 부분은 최인호 작가님 묵상글의 큰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 역시 그분의 글을 읽고, ‘성경을 이렇게도 묵상할 수 있구나’ 하며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최인호 작가님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30일 피정을 따로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분의 묵상 글은 깊은 성찰 속에서 체험한 복음 묵상에 천재적 글솜씨가 더해져, 신자들이 아주 쉽고 정확하게 주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. 저는 최인호 작가님이 하느님께서 주신 талан트를 정말 잘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.

2008년부터 침샘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최인호 작가님은 9주 동안 서울주보의 ‘말씀의 이삭’ 코너에 감동적인 투병기를 실었습니다. 그 글들은 투병기를 넘어 신앙과 삶에 대한 폭넓은 성찰을 담았습니다.

그 글에서 최인호 작가님은 시간, 공간, 역사와 문명은 한 송이의 꽃에 비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환상일 뿐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. 한송이의 꽃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사람을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라고 극찬했습니다. 그분은 우리가 부모도 태어나기 전의 ‘한 처음’으로부터 온 ‘사람’의 씨앗이며,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의 창세기로부터 온 ‘사람’의 열매라고 강조했습니다. 우리들은 모두 “영원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날 것”이라고 하며 생명의 신비를 알려 주었습니다. 우리들의 짧은 인생은 존재하지도 않는 일존광음(一寸光陰)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분의 글은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.

저는 개인적으로 최 작가님이 사실 낮을 가리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마음의 표현을 하시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글을 쓰면서 실제의 삶도 함께 변화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. 최 작가님은 전화 통화를 할 때, 보통은 인사와 더불어 일들에 집중해서 말을 하시고 개인적인 이

아기는 잘 안 하셨습니다. 그런데 한번은 투병 중에 있던 최 작가님이 전화를 끊기 전이었습니다.

“...저기 신부님!”

“네?”

“신부님, 사랑합니다!”

그다음부터는 항상 문자나 통화 끝에 “사랑합니다.”라고 표현하셨습니다.

그분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꼭 예수님에 대해 책을 쓰고 싶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. 저는 만약 그런 책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최 작가님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.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결국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.

‘교회 안에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최고의 신앙 수필작가’가 바로 최 작가님이라는 데 많은 이가 동의할 것입니다. 그분이 서울주보에 쓰셨던 한 글자, 한 글자는 우리에게 영적 선물이 됐습니다. 2012년 1월 서울주보에 실은 ‘옛가락의 기도’는 그 절정이라 생각합니다.

“주님,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옛가락입니다. 그러하오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 옛치기를 하시든 옛장수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. 다만 제가 쓰는 글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 달콤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소서. 우리 주 옛장수의 이름으로 바라나이다. 아멘.”

얼마나 많은 신자가 최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.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희망을 품고 한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.

“먼지가 일어난다. 살아난다. 당신은 나의 먼지. 먼지가 일어난다. 살아야 하겠다. 나는 생명. 출렁인다.”

그분의 바람처럼, 영원한 생명 안에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. 오늘의 서울주보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최 베드로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.